고려 초엽 박인량(朴寅亮)이 엮은 수이전(殊異傳)에 나오는 연오랑(延烏郎) 세오녀(細烏女) 설화는 한국의 유일한 태양신 설화다. 신라 아달라왕 4년(서기 157년)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각각 바위에 실려 일본의 한 섬에 도착해 그곳에서 임금과 왕비가 되었는데 그 순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변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들 부부가 타고 갔던 바위가 귀신고래의 등이었다고 한다.

고래 등에 사람이 탔을 리야 없겠지만 옛날 한반도 근해에 귀신고래가 얼마나 흔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설화다. 귀신고래는 바위로 착각하게끔 생겼다.